

『痘瘡經驗方』에 나타난 두창 치료의 특징과 그 의의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병연구단

김상현*

The characteristics of treatment of smallpox and its significance recorded in the *Duchanggyeongheombang*

Kim Sanghyun*

Mibyong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s : The paper seeks to delve into a study of smallpox, specifically a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ontagious diseases during the Chosun era and how it was treated during that time. The lack of traditional medical texts that deal with smallpox has led this paper to dive into *Duchanggyeongheombang*.

Methods : Everything related to edition and copy, and the author was organized based on pre-existing studies. The copy that is assumed as the original copy was considered and studied. The book was compared to and reviewed with *Donguibogam*,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book and Korean translation were given attention as well.

Results : Park Jin-hee is assumed to have authored *Duchanggyeongheombang*, and it is like that was had access to texts published by the state, one of which includes *Donguibogam*. He utilized the periods with smallpox outbreaks as his frame of study and put together a series of treatment for different symptoms. To this, he attached various medical charts, and added Korean translation for higher usability. In his book, he placed emphasis on spleen and stomach, but when needed, he did not shy away from using cold and coolness herbs.

Conclusions : *Duchanggyeongheombang* was influenced partially by *Donguibogam*, but the book was given new life through the author Park Jin-hee's edition. Medical charts were added to increase its usability, and Korean translation was provided for wider audience. Its scope of prescription is very wide, and it provided the reasonings behind its medical judgements based on actual clinical studies instead of being tied down to traditions or taboos.

Key Words : Smallpox, *Duchanggyeongheombang*, Park Jinhee, Study of smallpox, Chosun epidemiology

I. 서론

* Corresponding Author : Kim Sanghyun. Mibyong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672 Yuseong-daero, Yuseong-gu, Daejeon, 34054, Republic of Korea

Tel : +82-42-868-9549 Fax : +82-42-869-2756

Email : kshr@kiom.re.kr

Received(27 October 2016), Revised(14 November 2016),

조선시대에 대표적인 전염병으로는 癩疫, 痘瘡, 麻疹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痘瘡이라는 질병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천연두에 해당하는

Accepted(15 November 2016)

것으로서, 당시 왕실에서도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전염병이었다. 痘瘡과 관련하여서는 15세기의 『瘡疹集』부터 시작하여 『瘡疹方撮要』, 『診解痘瘡集要』, 『痘瘡經驗方』, 『時種通編』, 『醫家神方』, 『經驗痘方』, 『濟嬰新編』 등 다양한 의서가 조선 시대를 통틀어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다만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근절된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 조선시대의 痘瘡에 대한 연구가 실제 임상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전염병에 대한 조선 의학의 대처 방안을 탐구해봄으로써 전염병에 대한 현대 한의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있었던 전염병학의 일환으로 痘瘡과 관련한 의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여러 痘瘡 관련 의서 중 기존에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은 『痘瘡經驗方』을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의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해제에 국한되어 있는데, 『한글갈』에 수록된 최현배의 해제, 『증정 조선어학사』에 수록된 小倉進平의 해제, 『조선의서지』에 수록된 三木榮의 해제, 『한국의학사』에 수록된 김두종의 해제, 『한의약서고』에 수록된 김신근의 해제,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에 수록된 백두현의 해제가 있다.¹⁾ 그리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포털에서 제공하는 김의 해제가 있고,²⁾ 국립중앙도서관 포털

에서 제공하는 이와 김의 해제가 있다.³⁾ 또한 『痘瘡經驗方』의 저자 朴震禧와 관련한 내용은 조선의 유의를 소개한 김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⁴⁾ 그 외의 논저로는 국어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⁵⁾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진 판본이나 저자에 대한 내용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간단히 정리하고, 『痘瘡經驗方』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痘瘡經驗方』의 판본은 刊記가 없지만 원간본으로 추정되는 판본과 18세기 초에 경남 상주에서 重刊된 판본, 그리고 몇몇 필사본이 존재한다(Table 1.).⁶⁾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본간의 내용은 동일하며 표기나 음운상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⁷⁾ 본 논문에서는 이 판본 중 원간본으로 추정되는 서울대 규장각본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기본적으로 본문을 해석하며 고찰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고, 번역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직역을 하되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의역과 보충을 하였다. 그리고 본문과 언해를 비교하여 특징적인 부분을 도출해내었다. 또한 『診解痘瘡集要』, 『東醫寶鑑』에서 인용한 부분을 확인하였고, 『痘瘡經驗方』만의 독창

Table 1. The editions of Duchang-gyeongheombang and its holding institute. 痘瘡經驗方의 이본 및 소장처.

이본 종류	간행연도	소장처
원간본 추정	1649-1672 추정	서울대 규장각, 영남대 도서관
중간본 (상주판)	1711 (숙종 37)	서울대 규장각, 경북대 도서관, 계명대 동산도서관, 미국 버클리대 도서관
필사본	18세기 이후	국립중앙도서관, 경북대 도서관, 국민대 도서관, 동국대 경주캠퍼스 도서관,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

1) 이상의 내용은 이은규의 연구논저(이은규. 두창경험방 이본의 비교 연구. 언어과학연구. 2000. 18. p.211.)에 수록된 내용을 재인용한 것이며, 2000년 이전까지의 기존 두창경험방 해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포털에서 『痘瘡經驗方』 다섯 가지 판

본에 대해 김호가 해제한 것이 수록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포털. Available from: URL: <http://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 [Cited at 21 October 2016])

적인 부분을 『東醫寶鑑』과 대조하여 정리하였다.

Ⅲ. 본 론

1. 저자 朴震禧

사실 『痘瘡經驗方』은 서문이나 발문이 따로 없어서 저자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기존의 모든 해제에서 朴震禧가 저자라고 하거나 저자로 추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 연유를 찾아보면, 『痘瘡經驗方』의 重刊本(상주 판본)의 말미에 李世恒의 跋文이 있는데 거기서 本書를 ‘朴公의 經驗方(朴公 經驗方一篇)’이라고 언급하였고,⁹⁾ 『山林經濟』에 수록된 『痘瘡經驗方』 요약 내용에 ‘朴震禧가 저술한 것(朴震禧所著)’이라는 글귀가 있다.¹⁰⁾ 이러한 사료

들을 토대로 朴震禧라는 저자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朴震禧와 관련된 사료가 문집이나 실록에 보이지 않아서 그의 행적을 알기가 매우 어렵다. 김은 朴震禧가 痘醫로서 공로가 많아 여러 번 재화나 상을 받았다고 하였고,¹¹⁾ 김도 朴震禧가 御醫를 지냈으며 痘瘡 치료에 뛰어났다고 언급하였는데,¹²⁾ 그에 대한 원출전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또 미키 사카에는 朴震禧의 전기가 명확하지 않지만 仁祖 후반부터 그의 서적이 서울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었고 顯宗代에 영남 지역에 보급되었다고 하였으니,¹³⁾ 이는 重刻된 『痘瘡經驗方』의 跋文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결국 朴震禧에 대한 가장 상세한 사료가 『痘瘡經驗方』이라서 이 서적을 가지고 유추할 수밖에 없다.¹⁴⁾

그나마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을 꼽자면, 『痘瘡經驗方』 원간본의 간행 시기가 정확하지 않으나 『東醫寶鑑』의 간행 시기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東醫寶鑑』이라는 방대한 서적이 배포되는 데에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痘瘡經驗方』의 내용은 분명 『東醫寶鑑』의 영향을 깊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바꿔 말하면 朴震禧가 『痘瘡經驗方』을 저술하던 시점에 간행된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東醫寶鑑』을 접할 수 있었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이는 당시에 그가 국가 간행물인 『東醫寶鑑』을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2. 구성의 특징

003&gunchald=&NodeId=&setid=370897 [Cited at 5 November 2016]

다만 해당 내용은 현재 전하는 산림경제의 판본 중 三木榮 舊藏本에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판본(韓獨醫學博物館 一山文庫本, 吳漢根藏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11)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401.

12)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경기도 파주. 도서출판 들녘. 2011. pp.253-254.

13)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府 堺市. 富士精版印刷株式會社. 1963. p.209.

14) 朴震禧에 대한 김의 연구(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경기도 파주. 도서출판 들녘. 2011. pp.253-254.)도 대부분 『痘瘡經驗方』의 내용에 기반한 것이다.

3) 국립중앙도서관 포털에서 검색된 『痘瘡經驗方』 두 가지 판본에 대한 해제로서 이규근과 김종권의 것이 수록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포털. Available from: URL:

<http://www.nl.go.kr/nl/search/search.jsp?img=n&hanja=&sort=&desc=desc&all=on&topF1=title&kwd=%EB%91%90%EC%B0%BD%EA%B2%BD%ED%97%98%EB%B0%A9&x=19&y=15>. [Cited at 21 October 2016]

4)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경기도 파주. 도서출판 들녘. 2011. pp.253-254.

5) 문영희. 언해두창경험방 연구. 수언어문논집. 1986. 13. pp.157-158.

이경자. 두창경험방에 나타나는 구결 표기. 어문연구. 1993. 24. pp.483-499.

이은규. 두창경험방 이본의 비교 연구. 언어과학연구. 2000. 18. pp.209-234.

6) 본 표는 디지털한글박물관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토대로 하고(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한글박물관포털. Available from: URL:

<http://archives.hangeul.go.kr/scholarship/totalArchives/view/12703>. [Cited at 21 October 2016]), 기존 해제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7) 이은규. 두창경험방 이본의 비교 연구. 언어과학연구. 2000. 18. p.212.

8) 해당 판본은 『韓國醫學大系』 37권에 실린 영인본과 같은 판본이다.

9)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포털. Available from: URL:

http://kostma.korea.ac.kr/viewer/viewerDes?uci=RIKS+CRMA+KSM-WZ.0000.0000-20140423.TOYO_1672&bookNum=&pageNum= [Cited at 5 November 2016]

10)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Available from: URL: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KO&url=itkcdb/text/bookListIframe.jsp?bizName=KO&seoJid=kc_ko_g

『痘瘡經驗方』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전반부에서는痘瘡의 원인, 예방, 변별, 일반적 증상, 치법, 음식, 금기 등 총론적인 부분을 다루었고, 후반부에서는痘瘡의 전 주기에 따른 치법을 다루고 있다. 편제만으로 보았을 때에는『東醫寶鑑·雜病篇·小兒』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반부의 내용은 거의『東醫寶鑑』의 내용을 인용하였지만, 후반부의 내용은 유사한 편제 속에서도 차별점을 지니고 있기에 그 특징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全週期에 따른 수반증상 및 치법 정리

朝鮮時代に痘瘡에 대해 다룬 의서는『痘瘡經驗方』간행 이전에도 존재해왔다.世祖代의『痘疹集』과 中宗代의『痘疹方撮要』가 있으며 그 이후에 許浚의『診解痘瘡集要』가 있다.¹⁵⁾ 그 편제를 놓고 보자

면『痘疹集』과『痘疹方撮要』의 양식이 유사하고,『診解痘瘡集要』와『痘瘡經驗方』의 양식이 유사하다. 전자는 豫防-發出-和解-救陷-消毒-護眼-催乾-滅癩-通治에 해당하는 처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였고, 후자는 發熱-出痘-起脹-貫膿-收靨과 같이痘瘡이라는 질환의 진행단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증상과 그 치법을 제시하였다.¹⁶⁾痘瘡의 全週期를 3일씩 구분지어 기술한 방식은明代醫書『古今醫方』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조선 의서로는『診解痘瘡集要』부터 해당 방식에 따라 기술하고 있다. 여하튼『痘瘡經驗方』의 주요 편제는『診解痘瘡集要』와 유사하며 이는『東醫寶鑑·雜病篇·小兒』의 편제와 유사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¹⁷⁾『痘瘡經驗方』의 총론 부분에서『診解痘瘡集要』에는 누락되어 있으나『東醫寶鑑』에는 실려있는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痘瘡經驗方』은『東醫寶鑑』의 영향을 직

Table 2. Formation of the Duchang-gyeongheombang. 痘瘡經驗方の 구성.

구분	단락	내용	비고
총론	(夫痘瘡爲病)	두창의 원인 및 예방	『東醫寶鑑·雜病篇·小兒』의 ‘痘癩疹三證專由胎毒’, ‘稀痘方’, ‘痘瘡預防法’ 기사 인용
	辨痘證	두창의 변별, 형증, 치법	『東醫寶鑑·雜病篇·小兒』의 ‘辨痘證’, ‘痘瘡諸證’, ‘痘瘡治法’ 기사 인용 본문 중 “人家父母溺於慈愛 ~ 痘家之所宜深戒也”는 저자가 기술한 내용
	飲食	두창에 도움이 되는 음식	『東醫寶鑑·雜病篇·小兒』의 ‘飲食’, ‘痘疹宜食物’ 기사 인용
	禁忌	두창에서의 금기	『東醫寶鑑·雜病篇·小兒』의 ‘保護’, ‘飲食’, ‘禁忌’ 기사 인용
각론	發熱三朝	發熱-出痘-起脹-貫膿-收靨을 痘瘡의 全週期로 보고 각 시기에 수반되는 증상에 따라 치법을 제시함	『東醫寶鑑·雜病篇·小兒』에 ‘發熱三朝’라는 기사 있음
	出痘三朝 出痘終日 出痘時變證經驗		『東醫寶鑑·雜病篇·小兒』에 ‘出痘三朝’라는 기사 있음
	起脹三日		『東醫寶鑑·雜病篇·小兒』에 ‘起脹三朝’라는 기사 있음
	貫膿三日		『東醫寶鑑·雜病篇·小兒』에 ‘貫膿三朝’라는 기사 있음
	收靨三日		『東醫寶鑑·雜病篇·小兒』에 ‘收靨三朝’라는 기사 있음

Table 3. Comparison of treatments(when pimples come out) recorded in the Duchang-gyeongheombang and the Donguibogam. 出痘 시기에 대한 痘瘡經驗方과 東醫寶鑑의 치법 비교.

痘瘡經驗方	東醫寶鑑
<p>化毒湯 (加白芍藥山查肉蟬殼) 乾臙脂 + 白蜜 (外用)</p> <p>連翹升麻湯 鼠粘子末 (外用) 加減紅錦散△ 蟬退湯△ 紅花子湯△ 烏梅湯△ 糯米煎水 濃洗月經 化毒湯 加人參當歸酒洗 保元湯 加紫草茸升麻白芍藥酒炒山查肉蟬退糯米 化毒四物湯 木麥末 (外用)△ 敗草散 (外用)△ 滑石末 + 蜜水 (外用)△ 水楊湯 (外用)△</p> <p>豬尾膏 如聖飲△ 加味犀角消毒飲△ 化毒湯合導赤散 神解湯合化毒湯</p>	<p>消毒飲 化毒湯 犀角消毒飲 解毒防風湯 豬尾膏 透肌湯 加味四聖散 快瘋散 化毒湯 加紫草紅花蟬殼 四聖散 紫草飲 絲瓜湯 連翹升麻湯 鼠粘子湯 消毒飲 加酒炒芩連 護眼膏 (外用) 樺皮飴子 胡荽酒 保元湯 加紫草紅花 保元湯 加紫草蟬殼紅花 保元湯 加四苓散 化毒湯 加紅花黃芩升麻 蒲萄 蟬殼 山查子</p>
<p>* 出痘三朝에 언급된 痘瘡經驗方의 고유한 治方을 밑줄로 표시하였다. ** 공통된 治方은 이탤릭으로 표시하였다. 이 중 出痘三朝에 공통적으로 언급한 治方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고, 出痘三朝가 아닌 중후별 치법 챗터에 언급된 처방은 ‘△’를 덧붙였다.</p>	

접적으로 받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이같은 직접적인 영향 속에서도 큰 틀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東醫寶鑑』의 경우 질환의 진행단계별 치법 외에도 咽喉痛, 腰腹痛, 嘔吐 등과

- 15) 『瘡疹集』과 『瘡疹方撮要』의 간행연도는 각각 김의 연구(김성수. 조선전기 두창 유행과 창진집.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2010. 16(1). p.36.)와 성의 연구(성환갑. 창진방 활요 해제. 국어사연구. 2005. 5. pp.175-180.)를 참조하였다.
- 16) 이는 조선초기 宋代醫學의 영향을 받아 方藥 정보 위주로 의학지식을 정리하다가 임상경험을 토대로 점차 證治 정보 위주로 발전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 17) 『謄解痘瘡集要』의 내용은 『東醫寶鑑』에 모두 기재되어 있고 목차 또한 비슷하다. (김중권. 언해두창집요의 서지학적 연구. 현대사회과학연구. 1994. 5(1). pp.143-146.)

같은 수반 증후와 관련된 처방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痘瘡經驗方』의 경우에는 그러한 편제를 따르지 않고 오로지 痘瘡의 全週期에 따라 처방을 제시하였다. 이는 의학지식을 총 망라하여 정리하는 종합의서와 질병의 치료 경험을 기반으로 기술한 경험방이 각각 다른 간행 배경을 지니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순히 종합의서와 경험방의 성격 차이라고 보기에는 그 실질 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예로 出痘 시기에 언급된 『東醫寶鑑』과 『痘瘡經驗方』의 治方을 비교해 보았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出痘와 관련된 시기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진 처방은 3개에 불과했다. 대신 『東醫寶鑑·雜病篇·小兒』에서 痘瘡의 수반 증후에 수록된 治方이 『痘瘡經驗方』의 出痘시 처방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東醫寶鑑·雜病篇·小兒』의 「驚搐」에서 언급된 加減紅錦散, 「腰痛」에서 언급된 蟬退湯 등이 『痘瘡經驗方』의 「出痘三朝」, 「出痘終日」, 「出痘時變證經驗」에 포함된 것이다.¹⁸⁾

물론 이러한 점에서 『東醫寶鑑·雜病篇·小兒』에 흠어진 痘瘡 관련 처방을 發熱-出痘-起脹-貫膿-收靨의 편제로 정리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각 편제에 수록된 단방이나 가감방은 분명 『痘瘡經驗方』의 독창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2) 유용한 醫案 수록

『痘瘡經驗方』에는 총 5개의 의안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각각 出痘 시기에 3개, 起脹 시기에 1개, 貫膿 시기에 1개이다. 그 중 出痘 시기와 貫膿 시기의 의안을 한 가지씩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7세 남자아이가 두창을 앓는데, 얼굴이 한 조각 연치처럼 색을 띠는데 두창 돋은 것은 분명치 않게 피부 사이에 비추어서 푸른 듯 검은 듯 하며 손에 걸리지도 않았다. 눈동자는 위로 치켜뜨고 이갈이를 매우

심하게 하면서 한 시도 멈추지 않고 숨이 가쁘고 혈떡거리며 목구멍에 가래 끓는 소리가 톱 쳐는 소리 같았다. 온 집안사람들이 창황하여 한 시각도 보장할 수 없다고 여겨 의원을 불러서 약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였는데, (의원이) 조용히 한참을 보다가 일어나서 도망가 버렸다. 내가 생각하기에 두창 돋은 것이 손에 걸리지 않음은 잘 돋지 않은 것이고, 색이 푸른 듯 검은 듯 하고 눈을 치켜뜨며 이를 가는 것은 모두 열이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 化毒湯에 導赤散을 합하여 쓰는데, 두 처방에 감초가 다 있기 때문에 (한 쪽 처방의 감초를 빼고) 솔로 볶은 黃芩 한 돈을 더 넣어 급히 달인 뒤 한 첩을 먹이니 곧 살아났다. 대개 化毒湯은 잘 돋지 않은 것을 모두 치료하고, 導赤散은 소변으로 열을 흘려보내기 때문이다.¹⁹⁾

17세 남자. (두창을 앓고 있는데) 애초에 땀을 너무 많이 내어서 그 허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부풀어 오르는 시기)에 이르러 설사를 하는데 새벽부터 아침까지 일곱 번을 똌다. 그 집안의 숙부가 이를 두창 독이 매우 심한 것으로 여겨서 이때에 이르러 消毒飲을 쓰고자 하였다. 그러나 내 뜻은 비록 독이 심할지라도 氣가 虛하면 (두창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게다가 방서의 (두창) 설사를 멎게 하는 약이 保元湯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소독음을) 쓰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집안에서 말하기를, 이 아이의 병이 처음부터 순조롭지 못하니 결국 운명이 그러하다 하고 논의하지

18) 『痘瘡經驗方』에서 出痘 시기와 관련된 편제는 「出痘三朝」, 「出痘終日」, 「出痘時變證經驗」이다. 참고로 『東醫寶鑑』의 경우는 「出痘三朝」, 「出痘時吉以證」이다.

19)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7).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p.356-357. “有七世男兒患 頭面如一片靛脂色 而痘癩隱映於皮膚之間 或青或黑 亦不碍指 目睛上竄 咬呀太甚 無一時暫止 氣促喘急 喉間痰響 如引鉦聲 舉家蒼黃 莫保晷刻 固請醫者 願施藥治 則默視良久起而走之 余意 以爲痘不碍指者 不快出也 形色青黑 日竄咬呀 皆由熱極也 用化毒湯合導赤散 亦有甘草 故代以酒芩一錢 急煎 灌下一貼即甦 盖化毒湯全治不快出 而導赤散滲熱於小便故也”

않으려 하였다. 그 아이가 장차 죽을 것을 차마 보지 못하여 그 치료할 수 있음을 강하게 말한 뒤, 保元湯에 白茯苓, 白芍藥(볶은 것), 白朮(흙에 볶은 것) 각 한 돈, 肉桂 7푼, 서각가루 5푼을 넣고 두 첩을 쓰니 설사가 곧 멈추었다. … (중략) … 그 때 또 疔瘡를 앓아서 윗입술이 이미 문드러져 이와 잇몸이 드러나는 데에 이르니 급히 擦牙散에 龍石散을 합하여 바르고, 몸에 상처나고 문드러진 곳은 敗草散 십 수 말로써 온 몸을 문히게 하니 하룻밤 사이에 모두 딱지가 졌고, 입술이 문드러진 곳 또한 저절로 살이 돋았다. 保元湯 두 첩의 약 찌꺼기를 합쳐 달여서 쓰니 증세가 크게 줄어 들었다. 다음날 (환자의 형이) 또 와서 효과가 있었다고 전해와 온전한 약(보원탕) 한 첩을 먹게 하였으니, 전에 앓던 병이 모두 사라져서 살아나게 되었다.²⁰⁾

두 의안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환자의 증상과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病機를 해설하고 그에 마땅한 처방을 제시한 것이 의안으로서 가치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위의 의안에서 활용된 化毒湯合導赤散이나 保元湯 加味方과 擦牙散合龍石散은 본문에도 그대로 소개되어 있다.²¹⁾ 이러한 사실은 『

痘瘡經驗方』 본문에 기록된 처방들이 실제 경험에서 검증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3)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諺解

『痘瘡經驗方』 본문의 대부분은 諺解가 달려있다. 조선시대에 諺解가 달리는 醫書는 救急方, 辟瘟方과 같이 널리 보급될 목적을 지닌 경우가 많고, 『痘瘡經驗方』 또한 그러한 성격을 지녔다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보급의 대상이 되는 일반 백성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痘瘡經驗方』의 諺解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독자로 상정한 대상에게 긴요한 내용이 아니면 굳이 언해를 하지 않았다. 『痘瘡經驗方』 전반부에 『東醫寶鑑·雜病篇·小兒』의 「痘瘡諸證」, 「痘瘡治法」을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단락은 病證의 정황을 논했을 뿐이라 특별히 대단한 내용이 없으니 諺解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²²⁾ 醫書에서 질병의 증에 대한 내용이나 治法에 대한 원칙을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고 언급한 것은 이 서적의 독자층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해준다. 이 외에도 맨 마지막에 四聖回天湯을 創方한 醫家²³⁾의 醫論과 관련된 내용 또한 諺解하지 않았다.

또 다른 특징으로 諺解에 의역이 군데군데 보인다는 점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又不能費命服藥 終至不救者有之 惜哉

능히 제어해야 약을 머기디 못하야 못침 내 구리 못하느 니가 만하니 브디 아히들 상시에 잘 달려여 잘 그르쳐 약을 먹게 흘 썬시니라²⁴⁾

分 臨服犀角屑 五分 調下”, “擦牙散合龍石散 白梅肉燒存性 白礬枯 各二錢半 人中白煨 五錢 寒水石 三兩 朱砂 二錢半 龍腦 二分 右爲末 先以韭菜根與雀舌濃煎水 洗淨出血後 穆付日三四次 欄至喉中者 以竹筒吹入 雖牙齒爛落 口舌穿破 付藥則皆愈 但鼻梁發紅點者 不可治 此方乃大劑 當其病急之時 卒難劑 用或三分之一 五分之一 分用之 宜當”

20)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7).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p.372-375. “有十七歲男子 當初取汗太多 虛則可想 而至此有泄瀉 自曉至朝凡七度 其家叔父以爲痘毒太多 而至此飲用消毒飲 而余意則以爲毒雖多 而氣虛則無以成就 況方書止瀉之藥 無過於加入保元湯云爾 則曰此兒自初不順 果是命也 論議掣肘 而不忍其將死 力言其可 遂用保元湯加白茯苓白芍藥炒白朮土炒 各一錢 肉桂 七分 犀角屑 五分 二貼 則泄瀉即止 (중략) 其時又有疔瘡 上唇已腐至於齒齦露出 急用擦牙散合龍石散付之 身上瘡爛處則以敗草數十數斗 埋沒一身 一夜之間 盡爲成痂 瘡爛之處亦自生肌 保元湯 二貼之滓合煎用之 則證勢大減 翌日又來告有效 卽令精劑一貼服之 則前者所患一時盡除 以此得全”

21)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7).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358, 359, 371, 380, 381. “化毒湯合導赤散 紫草茸 乾地黃 木通 各一錢 升麻 甘草 各五分 加黃芩酒炒 一錢 入糯米五十粒 同煎”, “此時 若泄瀉則大危 急用保元湯 方見上出痘條 加白芍藥酒炒 白茯苓 白朮 乾薑炒黑 肉桂 各七

22)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7).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305. “此以上二節 論其證情而已 別無大段緊關之事 故不爲諺解”

23) 본문에는 全氏라고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논하겠다.

余審察則此果眞痘也 蓋世或有再行大痘者
而形色及證候決非他病 故欲只用化毒湯 則
腰痛極凶 必當用神解湯 以汗洽爲度 方可全
生 而欲用神解湯 以解腰痛 則汗亦痘出後大
忌也

그 증을 보니 과연 진짓 역질이라 다
만 화독탕을 뜯 거시로디 허리 알는 증이
극키 흥하니 브디 신히탕을 써 썸을 험흠
피 내여야 가히 살거시로디 썸 만히 내는
거시 쏘흔 역질 도든 후의는 극흔 금의
매²⁴⁾

두 예를 살펴보면 전자는 원문을 그대로 풀지 않
고 없는 내용을 덧붙이되 대체적인 의미가 통하게
하였고, 후자는 원문을 생략하면서 주요한 용약 정
보를 중심으로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諺解의 목적
은 이 서적의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諺解
의 성격은 향후에 필사본에도 이어지는데, 기존 목
판본 諺解의 어휘를 다르게 바꾸거나 추가로 삽입함
으로써 번역 양상에 차이를 보였다.²⁶⁾ 즉 필사자가
기존 판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諺解를 좀 더 정확
하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을 가한 것이다. 이 또한
서적 내용의 쉬운 전달을 위한 것이며 널리 보급될
필요가 있는 이 서적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3. 醫論의 특징

『痘瘡經驗方』은 그 구성의 특징 때문에 『諺解痘
瘡集要』나 『東醫寶鑑』에 비해 그 분량이 적다. 그렇
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 속에서도 일관되게 강조
하는 내용이 있기에 그 특징적인 부분을 몇 가지 소
개하고자 한다.

1) 痘瘡에서 脾胃氣의 중요성

24)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7).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307.

25)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7).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364.

26) 이은규. 두창경험방 이본의 비교 연구. 언어과학연구.
2000. 18. pp.229-231.

『痘瘡經驗方』에서는 이전의 痘瘡 관련 의서에서
와 같이 脾胃를 중시하여 음식을 통한 섭생을 중시
하였다.²⁷⁾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잘못
된 관습을 비판하며 경험을 토대로 한 논설을 첨부
하였으니, 아래와 같다.

부모들이 자식 사람이 너무 과하여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게하고 교만하게 기르다
가 이러한 痘瘡을 앓게 되면 음식과 기거
가 모두 절도에 맞지 않게 되고 능히 제어
하여 약을 먹이지 못하는데, 끝내 구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안타깝구나. 귀신의 있
고 없음은 비록 알 수 없지만 대개 생각해
보자면 사람의 마음이 본디 虛靈한데 이제
火를 끼게 되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
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된다. 무너들이 빙자
하여 말하는데 세상이 무당을 믿는 것은
진실로 이러한 말 때문이라. 만약 귀신이
있다면 (병의) 경중을 논할 것 없이 밖에서
의 일을 다 알 것인데, 병이 중한 자는 혹
알지 못하고 가벼운 자는 혹 알기도 하니
어째서인가? 세상에 神床을 세우지 않고도
痘瘡을 잘 넘긴 자가 있고, 방 안에 床후를
설치한 것부터 의복, 비단, 보화에 이르기
까지 무궁히 벌여도 끝내 죽음에 이르는
자도 있다. 또 병이 심한 자가 무당의 말을
듣고 저울철에 찬 물로 목욕하고 밤낮으로
기도하였으나 귀신의 도움을 얻지 못해 끝
내 조섭하지 못하니, 작게는 종신토록 병이
들고 크게는 그로인해 죽게 된다. 지금도
痘瘡을 앓는 아이가 있으면 온 집안이 고
기를 먹지 않는데 끝내 병든 아이가 위가
허하여 죽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것
이 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릇 痘瘡은 열이 성하므로 자연스레 어
류, 육류를 찾지 않는데, 무너가 이를 증귀
신[僧尼之神]이라 여겨 온 집안이 채소류

27)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7).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314. “痘以脾胃爲主 自始至終 以能食爲順 而淡食爲佳”

만 먹고 늙고 병든 어버이마저 모두 고기 음식을 폐한다. 심한 경우는 병든 아이가 어육을 찾아도 무너에게 물어보면 痘瘡神이 놀리려는 것이고 먹이면 위험하다고 하니, 병자가 있는 집은 두려워서 감히 어육을 주지 못하니 氣血을 더욱 허하게 하고 변한 證이 뒤섞여 나오게 하여 구하기 어렵게 하니, 세속의 관습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이와 같다. 무릇 내가 한 사람을 봤는데, 독자가 痘瘡를 앓았는데 처음에는 위험하지 않았다. 그 집에 생고기를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감히 먹지 못하여 神床에 놓고 빌었다. 따뜻한 방에 오래 두어 썩어서 악취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였다. 내가 주인에게 말했다. “그래의 집안이 무당의 금기를 믿는데 비록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도, 온 집안이 채식하는 것은 오히려 가능하나 유모가 채식을 하면 병든 아이가 반드시 상할 것이다.” 주인이 약간 웃으며 말하였다. “당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부인에게 논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니 어찌하리오? 청컨대 잠시 조용히 해주시오.” 과연 딱지가 떨어진 뒤에 혈기가 더욱 허해져서 자는 듯 안자는 듯 하다가 젖을 먹지 못하고 몇 달 뒤에 죽었으니, 안타깝지 아니한가? 이는 특별히 한 사람을 들어 말한 것이니, 痘瘡를 앓는 집안이 마땅히 깊게 경계해야 할 바이다.²⁸⁾

요컨대 당시 잘못된 관습으로 인해 痘瘡를 앓는 도중에 더욱 虛證으로 빠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으로 자주 활용한 처방이 있으니 바로 保元湯이다. 保元湯은 『東醫寶鑑』에도 痘瘡의 通治方으로 언급된 처방이지만, 『痘瘡經驗方』에서는 이 처방을 그보다 더 다방면으로 활용하였다. 아래는 『痘瘡經驗方』에서의 保元湯 加味例와 『東醫寶鑑』에서의 保元湯 加味例를 각각 표로 정리해 본 것이다.

물론 『痘瘡經驗方』에는 『東醫寶鑑』의 영향을 받은 加味例도 보이지만,²⁹⁾ 분명 더욱 다양한 임상례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痘瘡 중의 泄瀉에 사용한 加味方은 앞서 언급했듯이 醫案에 실제로 사용했던 것이니 만큼, 다른 加味方도 실제 임상에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保元湯 외에 脾胃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제시한 처방이 있으니, 바로 四聖回天湯이다. 이 처방은 전 유형이라는 사람이 創方했다고 되어 있는데,³⁰⁾ 그의

喫則必危矣 痘家惶懼不敢與小許魚肉 使氣血益虛而變證雜出 以至難救 習俗之誤人也如是 夫余觀一人 有獨子患痘 初不至危險 而其家有醜生肉者 不敢自喫 禱薦于神床之下 日久溫房 以致腐敗惡臭不可近 余謂主人曰 君家信巫俗忌 雖不得不從 而學家行素尚或可也 但乳母素食 則病兒必傷矣 主人微笑曰 非不知君言之爲是 而奈婦人輩論議太峻何哉 請姑徐徐 果於落痂之後 血氣愈益虛 似睡非睡 不省吹乳 數月自盡 惜哉 此特學一人而言 痘家之所宜深戒也”

29) 痘色이 紅紫할 때, 木香, 當歸, 川芎을 가한 것이나, 상처가 아물지 않을 때 白朮을 가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30) 朴震禧는 四聖回天湯이 全同知有馨이 지은 처방이라고 하였다.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7),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25. “此藥則 全同知有馨之所製也”) 실록에서 全有馨보다 全有亨이 더 자주 등장하는데 조선시대의 유의 중 해부학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알려진 全有亨이 같은 인물인지 확정할 수 없으나,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경기도 파주: 도서출판 들녘, 2011, pp.125-127.) 실록에 ‘同知 全有亨’이라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국사편찬위원회, 仁祖實錄 3卷. Available from: URL: http://sillok.history.go.kr/id/wpa_10110018_002. [Cited at 21 October 2016] “今者李有林乃承服逆賊, 同知全有亨, 敢於登對之時, 至請加爵於亂嶺, 以爲援引同黨之地, 其反常悖理大矣”) 다소 오류가 있지만 全有亨과 全有馨이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있는 근거를 문집(『頤齋亂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頤齋亂藁 42卷. Available from: URL: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mode=&page=1&fcs=&fcsd=&cf=&cd=&gb=&a10up=kh2_je_a_vsu_55001_000&a10no=kh2_je_a_vsu_55001_042&a115no

28)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7),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p.305-314. “人家父母溺於慈愛 任其所欲 長其驕傲 及患此疾 飲食起居 皆失宜 又不能資令服藥 終至不救者有之 惜哉 神之有無 雖不可知 蓋想心本虛靈而今乃挾火 故見其所不見 聞其所不聞 女巫籍以爲言 國俗之信巫 實由於此設 若有神 無論輕重 皆可明言外問事 而重者 或不知 輕者 或有知 何也 世或有不設神床 而好經痘疫者 或各設神床於房內 以至衣服錦繡紉寶貨 無不畢陳而終至死者亦有之 又有甚焉者 皆聽巫設 冬月浴冷日夜祈禱而不得神助 終失調攝 小則爲終身之疾 大則因病喪神 至今痘兒行素一家 不食肉 終至病兒胃虛而致死者亦多 此不可不甚也 凡痘熱盛 故自不思魚肉 而女巫以爲僧尼之神 學家素饜 至於老病父母皆廢滋味 而甚者病兒雖索魚肉 輒問於女巫 則必曰痘神 故欲獻之 與

Table 4. Examples of adding medicinal herbs to Bowontang recorded in the Duchang-gyeongheombang. 痘瘡經驗方의 保元湯 加味例.

단계	증상	가미
出痘三朝	痘粒欲出未出 隱映於皮膚之間 而其或顯出者 色亦淡白 痛勢不止	紫草茸 升麻 白芍藥(酒炒) 山查肉 蟬退 糯米 生薑
出痘終日	痒 (여름에 수양탕으로 씻기기 전)	
起脹三日	不起脹虛者	白芍藥(酒炒) 當歸 白茯苓 肉桂
	泄瀉 (의안)	白芍藥(酒炒) 白茯苓 白朮 乾薑(炒黑) 肉桂 犀角屑
	痘色全白	當歸 白茯苓 白芍藥(酒炒) 官桂 糯米 生薑
	痘色紅紫	木香 當歸 川芎
貫膿三日	(漿)色淡者	白茯苓 白芍藥(炒) 乾薑 肉桂 糯米
收靨三日	泄瀉者 或赤白痢者	白芍藥(微炒) 白茯苓 白朮(土炒) 肉豆蔻(煨) 肉桂 黃連(酒炒) 乾薑(炒)
	手足戰掉者	當歸 白芍藥(酒炒) 白茯苓 肉桂
	頤戰者	
	瘡處濕爛不斂者	白朮(土炒)
	氣困而耽睡者 / (氣短而耽睡者)	白芍(酒炒) 當歸身 白茯苓 鼠粘子(炒) 肉桂 糯米
保元湯 人參 二錢 嫩黃芪 甘草 各一錢		

Table 5. Examples of adding medicinal herbs to Bowontang recorded in the Donguibogam. 東醫寶鑑의 保元湯 加味例.

단계	증상	가미
(出痘)	一二日 初出 乾紅少潤	白芍藥 當歸 陳皮 玄參 鼠粘子
	二三日 根窠雖圓而頂陷者	川芎 官桂
(起脹)	四五日 根窠雖起 色不光澤	白芍藥 官桂 糯米
	五六日 色昏紅紫	木香 當歸 川芎
(貫膿)	六七日 不能成漿	官桂 糯米
	七八日 毒雖化漿而不滿	官桂 糯米
	八九日 漿不沖滿	糯米
(收靨)	十一日十二日 血盡漿足 濕潤不斂者	白朮 白茯苓
	十三十四十五日 毒雖盡解 或有雜證	隨證加減(不可用大寒大熱之劑)
保元湯 人參 二錢 嫩黃芪 甘草 各一錢 生薑 一片		

설을 책 말미에 수록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042&aa20no=55001_042_0006&gnd1=&gnd2=&keyw
ords=&rowcount=10. [Cited at 21 October 2016] “書
全有亨鶴松集後 全氏即金時讓尙潭日記所云 全同年也 許任
痘瘡經驗方所云 全同知也[주:誤以亨爲馨 其四聖回天湯 是
全氏所刪云]”
고의 연구에서도 全有亨을 고증하였는데 廣濟秘笈, 宜齋,
增補山林經濟에는 全有馨으로, 山林經濟에는 全有亨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였다.(고대원 외 3인. 숙종의 痘瘡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醫案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2. 25(1).
p.48.)

전씨가 말하였다. 錢乙, 張元素, 陳文中,
朱丹溪의 설을 살펴보니 모두 옳지 않다.
내가 일찍이 옛 方書를 따라 사람들에게
시험하기를 무려 수천, 수만 번 하였으나
탁월한 효과가 없었다. 십여년 동안 마음
깊숙이 생각에 잠겼다가 어느 날 문득 얻

은 바가 있었다. 痘瘡은 癘瘡과 같다고 하는데, 癘瘡를 치료할 때에는 마땅히 疏瀉하는 법을 써야 하지만 痘瘡에 疏瀉하는 법을 쓰면 도리어 안이 虛해져 죽게 된다. 痘瘡이 癰腫과 같다고 하는데, 癰腫을 치료할 때 고름이 잡히지 않는 것을 좋다고 여기지만 痘瘡에 고름이 잡히지 않으면 도리어 안으로 들어가 죽게 된다. 대개 痘瘡은 본디 五臟의 독으로 인해 생겼다고 하지만 脾가 주가 된다. 足太陰脾經이 담당하는 것이 기육인데 脾胃의 氣가 충실하면 生氣도 가득하여 痘瘡은 저절로 나올 것이니, 어떤 邪熱이 빌미가 되겠는가? 이에 四君子湯과 保元湯 등의 약을 써서 보하면 효험이 있는 자가 열 중에 일곱 여덟이니 痘瘡이 脾의 문제로 생기는 것이 분명하지만 백이면 백 효과를 보는 것 같지는 않다. 다시 연구해 보건대 급히 보하지 않으면 그만한 효과를 보기 힘들니, 마침내 급히 보하고자 하면 石藥을 써야 한다는 가르침을 얻었다. 人參으로 魂魄을 안정시키고 黃芪로 氣를 보하며 當歸身으로 血을 보하고 石雄黃으로 脾土를 온전히 보하게 하여³¹⁾ 四聖回天

湯이라 이름하였다. 痘瘡의 形證이 이미 나타나면 다른 병증이 아닌지 변별한 뒤에 人參, 當歸身, 黃芪 각 두 돈에 물 한 되 3홉을 넣고 4-5홉이 될 때까지 달인 뒤 곱게 간 石雄黃 가루를 5푼 타서 먹는다. 熱이 매우 심하고 검게 푹 꺼진 것이 심한 경우에는 白朮 두 돈을 더하고, 人參, 黃芪, 當歸身을 세 돈씩, 옹황 가루를 7푼으로 쓴다. 이 약 한 첩을 쓰면 추위에 떠는 자, 이를 부딪히는 자, 痘瘡의 색이 검붉은 자, 눈동자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 氣가 끊어지려는 자는 즉시 물이 차오르고 살아나지 않은 경우가 없으니, 영원히 나올 때까지 연달아 쓴다. 이 약을 쓰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낫고, 이 약을 쓰지 않으면 죽게 되니, 이 약의 효능이 또한 오지 아니한가? 죽은 자들이 살아 돌아온다면 丹溪, 東垣과 더불어 是非를 쳐루어 바로잡고 싶다.³²⁾

다소 과장이 보이긴 하지만 처방에 대한 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확신에 가까운 전씨의 의견에 朴震禧가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³³⁾ 그러나 분명 이 약을 활용하여 위급한 증

31) 石雄黃은 황화비소(As₂S₂) 등과 같은 毒性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탕제에는 사용하지 않고 외용하는 약재로 알려져 있다. 痘瘡은 아니더라도 石雄黃을 피부질환에 외용할 수 있는 소재로서 근래에 연구된 사례(이재성, 최유연, 양용모, 옹황 외용 도포의 아토피성 피부염 소양증 완화 및 항염증 효능, 대한한의학회지. 2015. 36(1). pp.9-21.)가 있으나 이 역시 외용을 전제로 한 연구이다. 내복하는 경우에도 중독 예방을 위해 매일 0.4g 이하로 복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楊倉良, 毒藥本草.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p.1007-1010.) 따라서 본 처방을 현대에 원방대로 사용하기에는 위험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유형의 方解를 보면 石雄黃이 脾土를 보한다고 하였으니, 알려진 石雄黃의 효능과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전유형이 石雄黃의 효능을 모르고 사용했을 가능성, 실제 사용한 약이 石雄黃이 아니거나 특수하게 수치를 했을 가능성, 극도로 위중한 痘瘡 환자에게 石雄黃이 효능을 보였을 가능성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실의 검증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전유형의 方解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 논거로 삼고자 한다.

32)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7).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p.429-431. “全氏曰 按錢氏潔古陳氏丹溪之說 皆非也 余嘗依古之方書 試於人無慮千萬并無顯效 潛心積慮 十餘年而一日 忽有所得 謂痘瘡如癘疫 則治癘疫當主於疏瀉 而痘瘡疏瀉 則反致內虛而死 謂痘瘡如癰腫 則治癰腫以不膿爲善 而痘瘡不膿 則反爲內吸而死 蓋痘瘡 雖曰本五臟之毒 而脾爲之主也 足太陰脾經所司者 肌肉也 脾胃充實 生氣滿盈 痘瘡自順 有何邪熱爲祟乎 乃用四君子湯保元湯等藥 以補之 則得效者 什常七八 痘瘡之出於脾 明矣 而似無百發中萬舉萬全之奇效 更爲研究 非急補則難得急效 遂用欲急補 用五石之訓 以人參安魂定魄 以黃芪補氣 以當歸身補血 而以石雄黃專補脾土 謂之四聖回天湯 痘形已發 辨其非他證然後人參當歸身黃芪 各二錢 水一升三合 煎至四五合 石雄黃極細末 五分 和下 熱極盛 黑陷甚則 加白朮二錢 而人參黃芪當歸身各三錢 雄黃末用七分 用此藥一貼 則寒戰者 咬牙者 紫黑者 目直視者 氣將絕者 卽刻起脹 無不再生 連用以永差爲度 用此藥則 什全十百全百全千 不用此藥則死 此藥之功 不亦大乎 九原可作 請與丹溪東垣 較其是非而正之”

33)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7).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25. “此藥則 全同知有馨之所製也 其自跋 有曰十全十

Table 6. Treatments to heat-related symptoms recorded in the Duchang-gyeongheombang. 痘瘡 經驗方의 열성 증후에 따른 用藥例.

단계	증상	용약
出痘三朝	有熱候 (不計熱之多少)	糯米煎水 濃洗月經
貫膿三日	熱候必盛	連用月經 間用豬尾膏
收靨三日	必有大熱 (或煩熱 或氣促喘急 或悶亂 或引飲異常)	必豫備糯米飲 月經 豬尾膏等藥
	譫語見鬼 / 昏昏不省	月經 豬尾膏等藥 連用之可也

세에서 살아난 경우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³⁴⁾

요컨대 당시 사람들이 痘瘡을 앓는 과정에서 기 존 관습으로 인해 脾胃를 虛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런 상황이 痘瘡의 진행 과정에서 언제든 지 나타날 수 있음을 피력하면서³⁵⁾ 기존에 알려진 保元湯이라는 처방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덧붙여 비슷한 맥락으로 활용된 다른 의가의 처방과 方意를 책 말미에 기록하고 있다.

2) 寒涼한 약의 활용

앞서 설명했듯이 『痘瘡經驗方』에서는 痘瘡을 앓는 과정에서 脾胃가 虛한 경우에 保元湯, 四聖回天湯과 같이 溫補하는 약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모든 처방이 꼭 그와 같은 방향으로 치우친 것은 아니었다. 痘瘡의 진행 과정 중에 열성 증후를 띠는 경우에 대해 기록하였고, 그에 따른 처방을 제시하였다. 그와 관련한 논설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옛 方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이 때에 (고름이 잡힐 때에) 구유를 잘 막고 음식과 약을 쓸 때 寒涼하고 담백한 것은 절대 피해야한다. 만약 脾胃를 상하면 맑은

기운이 아래로 꺼져서 고름이 잡히지 않는다.” 이 말이 진실로 옳지만 비록 그렇더라도 내가 痘瘡 치료하기를 수천 명에 이르렀는데, 반드시 이때가(고름이 잡히는 때가) 되면 熱이 심해지는 자가 많아 매번 여자의 月經血을 간간히 쓰고 豬尾膏를 적절히 이어서 쓰니 항상 효과가 있었다. (그렇다면) 病情이 옛날과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이 말을 고수하여 寒涼한 약을 쓰지 않으면 熱을 어떻게 내리고 병을 어떻게 낫게 하겠는가? 다만 熱이 심하여 病證이 변하여 나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니, 病證이 변하여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후에는 倉公과 扁鵲이 백 명 있다한들 어떻게 약을 써서 효과를 보겠는가? 진실로 애처로우니 또한 자세히 살펴서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³⁶⁾

朴震禧는 기존의 의학지식을 수용하고 있지만 실제 경험과 괴리된 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기존의 지식이 잘못됐다고 단정 짓기보다 같은 병이라도 시대에 따라 드러나는 증상이 다를 수 있다고 하면서 변수가 있을 가능성을 인지하였다. 그리고 痘瘡의 진행 과정에 따라 열성 증후가 있을 때 처방에 대해 기술하였다.

百全百 此則自多之辭也 未必其然”

김의 연구에서 朴震禧가 錢乙, 張元素, 朱丹溪 등의 두창에 대한 주장을 비판했다고 하였는데,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경기도 파주, 도서출판 들녘, 2011, p.254.) 그것은 분명 전유형의 말이며 朴震禧는 전씨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니 잘못된 내용이다.

34)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7).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25. “人家痘疾自初不用藥治 而危證雜出然後始問於余 故用他藥則別無的知之證 而形勢則極危 始用此藥 破有回生者”

35) 發熱 시기를 제외한 모든 진행과정에서 保元湯이 활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36)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7).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p.398-401. “古方有曰 此時 九竅慎宜封閉 飲食藥餌 極忌寒涼疏淡之物 若滿脾胃 則清氣下陷不能貫膿 此說誠是 雖然 余觀痘疫多至數千人而必於此時熱盛者居多 每以月經間用 以豬尾膏量宜連用 而輒見其效 無乃病情與古有異而然耶 若膠守此說 而不不用寒涼之藥 則熱何由降而病何由痊乎 惟其熱盛而變證隨出 不日而死 及其證變 而已至於無可奈何之地然後 雖有百倉扁 亦何以投藥責效乎 誠可慨然也 亦不可不詳審變通也”

비록 활용된 寒涼한 약의 종류가 糯米煎水, 月經, 豬尾膏 정도로 단순하지만, 병의 진행 과정에서 熱과 관련된 증후가 있으면 시기에 관계없이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기존의 연구 중 朴震禧가 『痘瘡經驗方』을 저술하면서 『東醫寶鑑』에서 痘瘡의 원인이 五臟의 태독에 있다는 설을 비판하고 脾胃와 연관지어 생각하여 치료했다고 보고한 것이 있다.³⁷⁾ 하지만 이는 논리적 비약이 있는 해석이다. 『東醫寶鑑』에서 설명한 痘瘡 관련 내용(五臟說 포함)을 『痘瘡經驗方』의 전반부에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脾胃를 중시한 것이 朴震禧 醫論의 특징 중 하나이지만 痘瘡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朴震禧의 醫論을 평가할 때 일부가 아닌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덧붙여 朴震禧가 醫家로서 痘瘡이라는 전염병을 대하였던 전반적인 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앞서 『痘瘡經驗方』에 활용된 처방 중 상반되어 보이는 두 예를 소개했는데, 그만큼 朴震禧가 痘瘡를 치료할 때 用藥의 범주가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이 서적만의 독창적인 특징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평이해 보인다. 하지만 그 의의가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痘瘡과 같이 위급한 전염병에 대해 접근하던 朴震禧라는 醫家の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질병에 대해 접근할 때 그 질병을 규정지으려는 경우가 간혹 있다. 『痘瘡經驗方』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에는 ‘痘瘡에 육식을 하면 안된다’, ‘痘瘡에 寒涼한 약을 쓰면 안된다’라는 사회적 금기 같은 것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朴震禧는 그러한 금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 병의 진행과정과 수반되는 증후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치료하려 하였다. 즉, 痘瘡이라는 질병이 보편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원인을 따져보되 그 판단에는 전적으로 수반 증후만을 활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기존의 금기와 실제 임상이 맞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치료까지 이어진 임상 경험을 토대로 기존의 금기가 진리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판단 과정에서 단순히 현재의 경험으로 기존의 이론을 뒤엎기 보다는 어느 정도 수용하되 적용되지 않는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다른 醫家の 처방과 그에 대한 설명을 수록하되 그의 경험이 전적으로 맞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니, 醫論의 수용과 비판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IV. 고찰

『痘瘡經驗方』은 序文이나 刊記가 없어서 그 간행 배경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重刻本, 筆寫本과 같이 다양한 이본이 발견된 것이나 『龍山療痘篇』, 『旆事撮要』 등의 책에 꾸준히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그 파급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³⁸⁾ 게다가 본 서적의 간행 이후에 있었던 왕실의 痘瘡 치료의 안을 살펴보면 『痘瘡經驗方』에 기록된 내용을 일부 공유하고 있다.³⁹⁾ 당시 痘瘡은 민간 뿐 아니라 왕실

38) 김의 해제에 따르면 이 책은 李蕃의 『龍山療痘編』(1672), 柳相의 『古今經驗活幼方』(숙종), 丁若鏞의 『經驗痘方』(1809), 李鍾仁의 『時種通編』(1817) 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포털. Available from: URL: http://www.nl.go.kr/nl/search/SearchDetail.nl?category_code=ct&service=KOLIS&vdkvgwkey=1149724&collype=DAN_OLD&place_code_info=002&place_name_info=%EB%94%94%EC%A7%80%ED%84%B8%EC%97%B4%EB%9E%8C%EC%8B%A4&manage_code=MA&shape_code=B&refLoc=null&category=&srchFlag=Y&h_kwd=%EB%91%90%EC%B0%BD%EA%B2%BD%ED%97%98%EB%B0%A9&lic_yn=N&mat_code=RB#none. [Cited at 21 October 2016])

39) 고의 연구를 참고하였다.(고대원 외 3인, 숙종의 痘瘡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醫案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2. 25(1), pp.43-51.) 『痘瘡經驗方』에만 기록된 四聖回天湯

37) 김의 해제(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포털. Available from: URL: <http://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 [Cited at 21 October 2016]) 및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간행된 저서(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실용서로 읽는 조선. 경기도과주. 글항아리. 2013. p.119, 120.)의 내용 참조.

에서도 생사가 달린 중대한 문제였는데, 그러한 痘瘡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의학지식을 한 권의 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당시 조선 의학을 집대성한 『東醫寶鑑』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인용하였고, 저자인 朴震禔가 실제 수많은 임상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치료에 필요한 지식을 정리하였다. 단순히 조문 형태로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생생한 醫案을 수록함으로써 그 신빙성을 높여주었고, 높은 수준의 의학지식을 민간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諺解하는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점은 당시 지식인의 애민사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그 醫論의 우수성도 찾아볼 수 있다. 실재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기록된 바로 수천 번의 두창 치료 경험이 있었으며, 그를 바탕으로 치료와 관련된 내용을 痘瘡의 全週期별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활용된 처방을 살펴보면 溫補하는 약부터 寒涼한 약까지 그 범주가 다양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특히 寒涼한 약으로 활용한 糯米煎水, 月經 등은 민간에서 구하기 쉬운 것들이기도 하다. 다만 月經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후세에 이견이 있긴 하지만,⁴⁰⁾ 16-17세기에 간행된 각종 經驗方이나 辟瘟方에 月經水를 활용한 기록이 있기도 하고 朴震禔도 실제 많이 활용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 외에도 기존의 관습이나 금기처럼 痘瘡이라는 질병의 성격을 정의하지 않고, 그 병이 진행되는 과

정의 특징과 더불어 나타날 수 있는 증후를 기반으로 판단하여 처방을 결정하였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질병을 다른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드러나는 현상 그대로를 분석한 것이다. 이는 현대 한의학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기도 하다. 최근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으로 전세계적인 관심과 사회적 공포감이 대두되고 있다. 현대 의학에서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미생물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전염병 관리 분야에서 현대 한의학이 나아가 갈 길은 새로운 질병의 발현 양상을 빠르게 삼고 그에 수반되는 다양한 증후들을 조사하여 병기를 분석하고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기백년 전에 『痘瘡經驗方』을 간행한 朴震禔가 그랬듯이 기존의 패러다임에 매몰되지 않고 발현된 질병의 양상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여 한의학적 처방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V. 결 론

지금까지 『痘瘡經驗方』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구성과 醫論의 특징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痘瘡經驗方』은 痘瘡의 총론과 病期和 관련된 편제에서는 『東醫寶鑑』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痘瘡의 全週期에 따른 수반 증상과 그 처방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東醫寶鑑』과 차별점을 지닌다. 무엇보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醫案을 수록하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본문을 구성하였다는 점이 독창적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에 배포하기 위해 諺解를 하였는데, 일반 백성이라는 독자층을 고려하여 諺解를 생략하거나 보완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痘瘡經驗方』에서는 痘瘡을 病情에 따라 脾胃를 補하는 약을 활용하기도 하고 寒涼한 약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기존의 관습이나 금기에 얽매이지 않고 드러나는 현상을 기반으로 판단하였고, 실제 임상에서 경험을 통해 그 판단을 검증하였다.

단순히 문헌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한계는 있겠지만

의 가감법을 활용한 것이나 保元湯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그 의안의 특징이다. 『痘瘡經驗方』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서적에 기록된 의학지식이 왕실에서 활용되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40) 『廣濟秘笈』에서는 痘瘡에 月經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Available from: URL: 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ViewOld.jsp?srchTab=1&DataID=KIOM_A015_Z_001&DataName=%E7%94%A8%E6%9C%88%E7%B6%93%E8%BE%A8&id=KIOM_A015_4_006_0012. [Cited at 21 October 2016] “用月經辨 人間腥穢 未有甚於月經 痘瘡之最惡者也 若起脹貫膿之時觸之 必有陷伏之患 而東人經驗方率多用之 何哉 愚謂收醫時餘熱 及服藥附干桂之毒最宜云”)

만 『痘瘡經驗方』의 내용은 충분히 실효성을 지녔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러한 『痘瘡經驗方』에 드러난 질병의 접근 방식은 새로운 전염병이 출현하는 지금 시점에서 현대 한의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 중 한 가지가 되어야 하겠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2015M3A9E3051024)과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 “한의 지식 포털 구축(K16512)”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Joseon in practical books. Paju. Geulhangari. 201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실용서로 읽는 조선. 파주. 글항아리. 2013.
2. Kim NI. The Intellectuals of Joseon Keen on Korean Medicine. Paju. Dulnyouk publishers. 2011.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파주. 도서출판 들녘. 2011.
3. Kim DJ. History of Korean Medicine. Seoul. Tamgudang. 1981.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4. Kim SG ed.. Hankukuihakdaegy(37). Seoul. Ryeongang Publisher. 1994.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7). 서울. 麗江出版社. 1994.
5. Miki Sakae. History of Korean Medicine and of Diseases in Korea. Sakai. Fuji publishers. 1963.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堺市. 富士精版印刷株式會社. 1963.
6. Yang CL. Duyaobencao.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ers. 1993.
楊倉良. 毒藥本草.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7. Ko DW, et al.. A study on the Clinical Records of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anast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2. 25(1).
고대원 외 3인. 숙종의 痘瘡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醫案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2. 25(1).
8. Kim SS. The smallpox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Changjinjip(瘡疹集)”.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2010. 16(1).
김성수. 조선전기 두창 유행과 창진집.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0. 16(1).
9. Kim JK. A Bibliographical Study of Unhaeduchangjipyo. Journal of Modern Social Science. 1994. 5(1).
김중권. 언해두창집요의 서지학적 연구. 현대사회과학연구. 1994. 5(1).
10. Moon YH. A Study on Unhaeduchangjipyo. Studies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986. 13.
문영희. 언해두창경험방 연구. 수언어문논집. 1986. 13.
11. Sung HG. A Bibliography of Changjinbangchwaryo. Korean Historical Linguistics. 2005. 5.
성환갑. 창진방촬요 해제. 국어사연구. 2005. 5.
12. Lee KJ. Gugyeol signs on Duchang-gyeongheombang. The Research of Language and Literature. 1993. 24.
이경자. 두창경험방에 나타나는 구결 표기. 어문연구. 1993. 24.
13. Lee EG. A Comparative Study on the Editions of Duchang Gyeongheombang.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2000. 18.
이은규. 두창경험방 이본의 비교 연구. 언어과학연구. 2000. 18.
14. Lee JS, Choi YY, Yang WM. Effects of topical application of realgar on pruritus and inflammation of atopic dermatitis. The

- Journal of Korean Medicine. 2015. 36(1).
이재성, 최유연, 양용모. 옹황 외용 도포의 아토피성 피부염 소양증 완화 및 항염증 효능. 대한한의학회지. 2015. 36(1).
15.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Library of Korea(www.nl.go.kr). Available from: URL: http://www.nl.go.kr/nl/search/SearchDetail.nl?category_code=ct&service=KOLIS&vdkvgwkey=1149724&colltype=DAN_OLD&place_code_info=002&place_name_info=%EB%94%94%EC%A7%80%ED%84%B8%EC%97%B4%EB%9E%8C%EC%8B%A4&manage_code=MA&shape_code=B&refLoc=null&category=&srchFlag=Y&h_kwd=%EB%91%90%EC%B0%BD%EA%B2%BD%ED%97%98%EB%B0%A9&lic_yn=N&mat_code=RB#none. [Cited at 21 October 2016]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포털.
16. National Hangeul Museum. Digital Hangeul Museum(archives.hangeul.go.kr). Available from: URL: <http://archives.hangeul.go.kr/scholarship/totalArchives/view/12703>. [Cited at 21 October 2016]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한글박물관포털.
17.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e Annals of King Injo's reign vol 3, 1623. Available from: URL: http://sillok.history.go.kr/id/wpa_10110018_002. [Cited at 21 October 2016]
국사편찬위원회. 仁祖實錄 3卷.
18. Seoul National University.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e-kyujanggak.snu.ac.kr). Available from: URL: <http://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 [Cited at 21 October 201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포털.
19.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Jangseogak Royal Archives (yoksa.aks.ac.kr). Available from: URL: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mode=&page=1&fcs=&fcsd=&cf=&cd=&gb=&aa10up=kh2_je_a_vsu_55001_000&aa10no=kh2_je_a_vsu_55001_042&aa15no=042&aa20no=55001_042_0006&gnd1=&gnd2=&keywords=&rowcount=10. [Cited at 21 October 2016]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20.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nowledge of Oriental Medicine Web Service(jisik.kiom.re.kr). Available from: URL: 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ViewOld.jsp?srchTab=1&DataID=KIOM_A015_Z_001&DataName=%E7%94%A8%E6%9C%88%E7%B6%93%E8%BE%A8&id=KIOM_A015_4_006_0012. [Cited at 21 October 2016]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21. Korea University. Center for Overseas Resources on Korean Studies (kostma.korea.ac.kr). Available from: URL: http://kostma.korea.ac.kr/viewer/viewerDes?uci=RIKS+CRMA+KSM-WZ.0000.0000-20140423.TOYO_1672&bookNum=&pageNum= [Cited at 5 November 2016]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포털.
22.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Database for Korean Classics(db.itkc.or.kr). Available from: URL: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KO&url=/itkcd/text/bookListIframe.jsp?bizName=KO&seojid=kc_ko_g003&gunchaid=&NodeId=&setid=370897 [Cited at 5 November 2016]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